

잠언에 나타난 의인의 모습

유선명*

들어가는 말

의로움은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구약성경 역시 의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의로움에 대한 서술(describe)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의로움을 요구(prescribe)하고 있다. 의로움에 대한 관심과 언명이 구약성경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예언서에 비해 의로움에 관한 지혜문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혜문헌 특히 「잠언」에 의와 의인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은 것에 비추어 이러한 학문적 방기상태는 꼭 의아스러운 일이다.¹⁾ 잠언에서 발견되는 의로움에 관한 수많은 언명들은 의로움이라는 개념에 대한 추상적, 명제적 진술보다는 그 의로움을 체화한 의인의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전달된다. 잠언의 도덕 강화에서 **קַטָּב** 즉 의인이 갖는 중요성은 지혜서의 보편관심사인 지혜/지혜자의 것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것이므로, 의로움은 다수의 미덕들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다채로운 격언들의 선집인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구약학

1) 개개의 잠언들(proverbs)과 구약 정경으로서의 잠언(the Book of Proverbs)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는 잠언, 후자는 잠언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개역개정』을 비롯해 널리 공용되는 성경들의 공식책명이 잠언이므로 약간의 애매함을 감수하고 양자를 다 잠언으로 부른다. 잠언에 나타난 의를 주제로 한 필자의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FAT II/55 (Tübingen: Mohr Siebeck, 2012)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2006년 시점의 연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이후 같은 주제를 충분히 다룬 저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잠언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심적 주제이자 문학적 장치로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²⁾ 이스라엘 지혜문학의 표준저술이라 할 잠언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잠언이 묘사하는 이상적 인간형이 지혜자인 동시에 당연히 의인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구약 지혜문학 중에서도 잠언을 특징짓는 고유한 사고체계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잠언에 나타는 의인의 묘사를 분석해 의로움의 가치가 무엇인지, 독자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의인을 보고 의로움을 배우다: 삶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의인

잠언은 독자들이 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격려의 차원을 넘어³⁾ 지식의 추구하고 획득을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킨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지혜를 보화로 여기라, 얻은 지혜를 간직하라 등의 교훈은 잠언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1-9장에서 집중되어 등장한다. 재산의 축적이 더 큰 재산의 축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듯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잠 9:9의 진술은 그와 같은 지혜의 확대투자를 묘사한다.

2) 잠언에서 의로움의 중요성은 의, 의로운, 의인 등 단어군의 사용빈도 그리고 의로움을 언명하는 격언들의 수효를 보아서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잠언 교훈의 논리구조 속에서 의라는 개념이 갖는 포괄성에서도 기인한다. 현창학은 잠언의 많은 실질적 교훈들이 “결국 의의 교훈 하나로 환원”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모든 교훈을 아우르는 대표 교훈”이라고 지적한다.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85-86.

3) 이것을 결코 자명한 명제가 아니다. 특별한 신분을 갖거나 신적 존재 혹은 매개자의 조력을 얻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여러 종교에서 발견되는 사고체계와 달리, 잠언은 지혜는 기꺼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더 지혜로워지고 의인을 가르치면 학식을 더한다.⁴⁾
(잠 9:9)

그러나 지혜는 맹목적 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잠언 1:3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독자(학습자)가 의와 공의, 반듯함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지혜의 획득은 인격과 도덕성의 향상에서 참된 의미를 확증하게 되며, 지혜로운 현인은 그러한 성취를 체화(embody)했다는 뜻에서 의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진다. 이처럼 잠언의 도덕강화에서 현인과 의인이라는 두 개의 호칭은 의미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상은 동일한 지시체에 게 적용된다. 의인은 곧 현인이며 현인은 의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동지시성(coreferentiality)은 잠언 전체의 분석결과를 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결론이다.⁵⁾

잠언의 도덕적 강화가 갖는 교육의 방법들을 일별해 보자. 첫째, 악인이 의인으로 돌아서는 ‘개종’(conversion)은 잠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사실 잠언의 많은 강화들 속에 악인에 관한 서술문은 넘쳐나지만, 악인을 향한 즉 악인을 수신인으로 한 명령문이 하나라도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둘째, 잠언은 의로움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잠언에는 의인에 관한 묘사가 많으며 그들을 종합하면 별 어려움 없이 “의인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이 하는 행동 중 어떤 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직접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의 리스트 즉 일종의 윤리강령을 「잠언」이라는 책에서부터 추출해 낼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잠언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은 의로움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악을 혐오하고

4) 본 논문에 인용한 성경 및 고대문헌의 번역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필자의 사역임.

5) 공동지시성의 개념정리와 잠언서예의 적용은 Knut Heim, “Coreferentiality Structure and Context in Proverbs 10:1-5,”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6 (1993), 183-209; 그리고 동일 저자의 *Like Grapes of Gold Set in Silver: an Interpretation of Proverbial Clusters in Proverbs 10:1-22:16*, BZAW 27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를 참조하라.

멀리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역동적인 교수법이다. 특별히 악인의 언행에 관한 묘사는 종종 섬찟하리만큼 상세한데, 이것은 악을 미워하게 하는 충격요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

의인은 단지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의 결과물으로써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은 의인을 독자/학습자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기에 의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단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의인의 성공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속한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을 기증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 내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일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의무인 셈이다. 아래 잠언들은 비교해 보면 의인이 누리는 복의 공공성이 명확해진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1:11)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14:34)

이와 유사한 구절들은 의인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매력적으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배후에는 이성적 동의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이 존재한다. 사람의 감성과 의지에 호소하지 않고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어리석은 일이다. 팩스는 도덕성의 형성과 관련된 지혜문학의 가르침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6) 악을 갈망하는 악인의 혐오스런 묘사를 심리치료의 기법인 aversion therapy의 관점에서 살핀 시도로는 필자의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64-66를 참조하라.

지혜에는 지성적 측면만이 아닌 태도와 감성의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욕구하라고 주문한다(4:6-8). 지혜는 곧 그 영혼의 상태이고 도덕의 주체로서의 인격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적 인격의 형성이야말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최고의 난제인 것이다. 도덕적 인격이란 결국 올바른 욕구를 갖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인데, 도대체 욕구를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욕구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욕구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욕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는 있다. 도덕적 훈계란 그런 의미에서 설득을 넘어 유혹의 성격을 갖는다. 학습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학습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언의 도덕강화는 독자로 하여금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하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젊고 미숙한 청년(아들)이 올바른 선택의 결과로 누리게 될 삶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어 그것을 원하도록 하고, 그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기만성을 폭로함으로써 스승(아버지)은 학습자를 의로운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 격언들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의인은 도덕률의 학습과 내면화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잠언서의 교육 목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물표본이다. 의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용성보다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선택을 내리며, 유혹의 극복, 절제와 훈련, 약속 이행, 신뢰의 유지가 그의 행동패턴을 특징짓는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13:5), 뇌물을 받지 않으며 (15:27), 타인의 친족 재산을 존중하며 (22:28),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다 (21:26).

일반적 도덕성의 서술을 넘어 잠언서가 강조하는 특징이라면 의인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의로와지려는 욕구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온다는 점이다. 의인은 의의 씨앗을 뿌리고 (11:18) 의로움을 추구한다

7) M. Fox, *Proverbs 1-9*, AB 18A (New York: Doubleday, 2000), 348. 필자의 사역.

(15:9). 아래 잠언은 이러한 욕구의 양극단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보여준다 (12:5):

의인의 계획은⁸⁾ 공의이지만,
악인의 전략은⁹⁾ 사기이다.

의인은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구절들에서 의인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계획하다, 씨뿌리다, 추구하다) 도덕적 행동주체로서 의인이 갖는, 의로움을 향한 욕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 필자는 의로움의 작업가설적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린 바 있다.

의로움은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 인간 혹은 신적 개체 전체가 갖는 통합적 특성으로서, 도덕적 선택에서는 반듯함으로, 사회적 거래에서는 공정함과 자비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자신 안에 철저히 하고 내면화된 품성으로서 육화하며, 의로와지려는 욕구를 배양하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즐거워한다.¹⁰⁾

잠언이 그리는 의인은 일관성 있는 인격체로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품성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위의 잠정적 정의에 기초해 잠언이 어떻게 의인을 기술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의로움에 관한 잠언의 변별성(differentia) 즉 잠언 특유의 개념상들(conceptions)을 밝히고

8) “계획”과 מְחֻבָּר “전략”은 תְּחֻלּוֹת (복수(plural) 형태이지만 의미상 군집명사 (collective noun)로 기능한다.

9) 히브리어 תְּחֻלּוֹת의 어근은 불분명하나 구약성경 내에서는 판단, 결정 및 지휘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욥 37:12) 혹은 사람(11:14)의 능력을 가리키고 악인의 계획(잠 12:5) 지칭해서도 사용되었다. 전체 용례는 HALOT, “תְּחֻלָּה” (4:1716)을 보라. 타흐볼롯은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amoral) 정신기능이다. 팩스는 12:5을 "지적 능력이 악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잠언을 통틀어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라고 평했다 (Fox, *Proverbs 1-9*, 37).

10) Lyu,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13-14.

자 한다.

2. 의인은 공감한다

의로움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며, 의인은 공감에서 나온 행동을 자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간주한다. 잠언서는 정의와 공정을 행하는 것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21:3) 단호하게 말한다.¹¹⁾ 바인펠트(Weinfeld)가 명확히 보여주었듯이, 정의를 행한다는 표현은 절박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애를 베풀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¹²⁾ 의인은 자신을 절박한 이들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아웨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충성의 표현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의인이기에, 정의와 공정의 실천이 의인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의 관점에서 의로움은 자선행위나 사회운동을 넘어선다. 의로움은 행동만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성향과 태도까지 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언서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예민함과 공감을 갖고 있는데 반해, 악인은 그런 이해가 결핍되어 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이해하지만
악인에게는 그런 지식을 짐작하지 못한다 (29:7)

악인의 둔감함은 부주의가 아니다. 악한 자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11) 이 면에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 8세기 예언자들과의 교감이 엿보인다. 미가 6:8은 이러한 정신을 잘 요약해 준다.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무엇이 선한지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 주셨으니,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12)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Minneapolis: Magnes, 1995).

그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귀를 돌려 버린다.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에 귀를 닫는 자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21:13)

이 격언은 가난한 이에게 도움 베풀기를 거절했던 악인이 자신이 마찬가지로 딱한 신세가 되어 버리는, 일종의 인과응보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¹³⁾ 약자에게 고의적으로 무심했던 무자비한 인간은 바로 그 행동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만 것이다.¹⁴⁾ 본문이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이지는 않지만, 수사적 장치구조는 충분히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한 자가 타인의 이쁨과 고난에 대해 자신을 차단하는 행동은 그와 대조되는 공감의 능력이 품성개발의 핵심요소이자 근본적 미덕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드러내 준다. 엄연한 현실을 보고 듣지 않으려는 자세는 자신에게 눈과 귀를 주신 창조주의 뜻을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책임방기(negligence)는 종종 악의 근원이 된다. 미글리(Midgley)는 도덕적 책임방기가 가져오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은 대체로 광기나 기이한 도덕관념보다는 자신의 행동들에 내재된 도덕적 원리와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¹⁵⁾

13) 김정우는 이 역학관계를 lex talionis “동태보응의 법칙”으로 규정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태 18:23-35)에 연관시키고 있다. 김정우,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90.

14) 히브리어 동사 **בָּרַח** “귀를 닫아버리” (HALOT 1:37)는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가 아닌 고의적 무관심을 가리킨다. 이사야 33:15 (14-16 문맥 참조), 시 58:5, 잠 21:13이 모두 그러한 선택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잠언 17:28 그리고 비유적으로 시 69:16에서는 같은 단어가 입술을 다무는 행동을 묘사한다.

15) Mary Midgley, *Wickedness: A Philosophical Essa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63.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도덕적, 지적 능력의 산물인 이상과 원칙들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 즉 게으름이야말로 죄의 근원이다.¹⁶⁾ 참으로 공포스러운 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차츰 빛바래가는 과정이다. 한 개인이 악을 행할수록 선을 행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 결과 그의 도덕적 지각과 분별력은 손상되고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망가진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이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악한 자는 그러한 지식을 짐작하지 못한다.¹⁷⁾ (29:7)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의 도덕적 태도와 선택들이 결국은 그 내면의 모습을 형성하는 결정적 인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목숨도 헤아리지만
 악인은 잔인함이 그의 자비이다 (12:10)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의로움과 악함은 사실 많은 것을 공유한다. 양자가 다 인격체 내부에 깊이 새겨져 있고 저마다 특정한 종류의 욕구를 수반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위 격언은 동물보호나 개인적 취향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인격형성과정의 결과와 함축이다. 의인은 가축들에게까지 민감하고 동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그 마음이 빚어져 있는 반면, 악인은 악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16) Midgley, *Wickedness*, 63.

17) 동사 **נָחַם**를 “보살피다” (care about; NIV)나 “관심을 갖다”(is concerned with; NJPS) 등으로 옮기는 것은 잠언이 견지하는 지식과 미덕의 밀착된 관련성을 무력화하는 과잉번역이다. 잠언서에서는 지식이 곧 미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같은 맥락에서, 야웨의 종이 자기 백성을 “그의 지식으로” 구원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의미심장한 언명이다(사 53:11). 단 **נָחַם**의 법정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이 격언의 맥락은 의인이 유력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의 송사(legal case)를 돕는 정황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문맥 없는 분석이기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번역한다.

위 격언에 나란히 나오는 두 인격체의 강렬한 대비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악인은 자기 의지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악이 악한의 감성을 마비시킴으로써 그가 내면에 갖고 있었던 공감의 능력이 기능 정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악인이 잔인함을 갖게 된 것은 자의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 스스로는 너그러우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이기에, “뺏속까지 썩은” 인격의 기준에서의 자비란 것이 실상은 잔인함이 되고 만다.¹⁸⁾ 이처럼 악인은 인격이 좀먹은 무감각 상태를 넘어 철저히 망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그 이유가 무지함(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진 경우)이든 게으름(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경우)이든, 아니면 마음 속 깊이 있는 적대감이든, 결국 악인은 남을 돕는 방식으로는 살지 못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악함은 다른 성향과 더불어 관측 가능한 또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지배적 성향이 되어 있다. 이것이 화이브레이가 “인격의 완전한 부패”라고 명명한 그 상태이다.¹⁹⁾

그와 대조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동물을 향해서도 동정심을 품는다.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선한 것에 마음이 기우는 성향과 더불어 약자들을 향한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잠언서가 원수가 몰락해도 기뻐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의 대적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넘어질 때 네 마음이 기뻐하게 말라 (24:17)

잠언을 기록한 현인들은 선행은 사회적 통념이나 선심에서 비롯된 인도

18) 맥케인은 악인을 “무감각하고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 돌덩이같이 딱딱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William McKane, *Proverbs: A New Approac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52.

19) R. N. Whybray, *Proverbs*, NCBC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80.

적인 행동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믿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창조주를 향한 공경인 반면,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가난한 이들의 몫을 움켜쥔 자는 그들의 창조주를 대적하고²⁰⁾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14:31)

가난한 이를 조롱하는 자는 그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며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 (17:5).

가난한 이를 향해 마음을 두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다.²¹⁾ 가난한 자들에게 예민하고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보상이 따른다. 제임스 크렌쇼는 이렇게 요약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²²⁾

3. 의인은 현명하다

잠언에서 의인과 지혜자에 관한 묘사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것은 흔히 설명이 필요없는 내용으로 간주된다. 머피는 두 집단 간의 관계를

20) 히브리어 본문 상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3인칭 남성단수로만 (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자와 받는 이가 분명치 않다.

21)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이스라엘 종교성의 근본요소이며 고대근동 종교문화와 깊이 교감하는 부분이다. 이 주제에 관한 고전적 저술로 F. Charles Fensham,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29-139와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Minneapolis: Magnes, 1995)를 참조하라.

22) J. Crenshaw, “Poverty and Punishment,” *Urgent Advice and Proving Questions: Collective Writings on Old Testament Wisdom* (Macon, GA: Mercer, 1995), 400.

동일성(identification)을 가진 같은 대상으로 이해한다.

지혜문학의 특징이자 놀라운 변천 하나는 의인(짜딕)과 현인(하감)을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인간을 현인과 바보로 나누는 분류법이 의인과 악인의 분류법과 짝을 이루게 되었다 ... 성경의 지혜를 도덕률로 축소시킬 일수도 없지만, 도덕과 지혜는 분리되어선 안 된다.²³⁾

잠언의 도덕 강화에서 짜딕과 하감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체들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동일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 두 개념이 근접거리에서 (문장 내 혹은 문장 간 거리) 한 지시체에게 적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잠언 10-15장에 나오는 145개의 반어적 평행구절 중 단지 두 개만이 의인과 현인을 직접 연결시키고(10:31; 11:9), 단 한 번 어리석은 자와 대비시킨다(10:21).²⁴⁾ 사실 잠언서의 의인이 직업적 현인 그룹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역사적, 사회학적 증거는 거의 없다.²⁵⁾

의인과 현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이다. 두 호칭은 상호간에 개념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상적 인간형으로 상정된 같은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의로움과 지혜는 그들 없이는 공지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 그러한 공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의와 지혜는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 다른

23) R. E. Murphy, "Wisdom in the OT," *ABD* 6:926.

24) R. B. Y. Scott, "Wise and Foolish, Righteous and Wicked," *VTSup* 23 (1972), 146-165

25) 고대근동의 공통적 문화현상으로서의 지혜전승과 그 담지자로서의 지혜자(현자) 그룹을 입체적으로 다룬 연구서는 John Gammie and Leo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이스라엘 지혜전승의 윤리적 역할, 특히 율법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미친 역할에 관해서는 Joseph Blenkinsopp,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Rev. ed., The Oxford Bible Seri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1995)를 보라. 이스라엘에 전문적인 지식인(현인)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R. N. Whybray,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BZAW* 135 (Berlin: Walter de Gruyter, 1974)에 논증되어 있다.

미덕들을 흡수해 한 사람의 인격 전체의 특징을 결정짓는 거대 미덕 (meta-virtue)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의와 지혜의 동일성보다는, 성숙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의 인격에는 의와 지혜가 공존하기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양자간의 통합성을 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잠언의 수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의를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잠언의 서문은 지혜의 유익을 독자들에게 설득하면서 지혜와 관련된 어휘들을 쏟아놓는다.²⁶⁾ 하카과 짜딕은 동일 문장 내에서 지근거리에서 호칭으로 공용되기보다는 동일 대상을 묘사함으로써 두 단어 양자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누군가가 지혜로움을 원한다면 그것이 의로움의 속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지혜라 할 수 있고,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온당한 의로움이 된다. 결국 잠언서의 관점에서는 지혜에서 의로움을 배제할 수 없고 의로움은 지혜로움으로 채워져야 한다.

두 번째는 문예적 증거이다. 의인과 현인이라는 두 인물상을 비교해보면 그 특성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의인은 재산관리에 현명하고 대인관계에 유능하다 (10:16; 15:6). 지혜의 대표적인 특성인 말의 유려함과 평정심의 유지는 현인에게서만 아니라 의인에게서도 발견된다.²⁷⁾ 잠언서는 의인의 생각과 말이 현명함을 자주 묘사하는데, 의인의 말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10:11), 많은 이를 유익하게 하며(10:21), 지혜를 펼치고(10:30), 상황에 걸맞는(10:32) 특성들로 인해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 의인의 ‘축복’이 성읍을 이롭게 한다는 언급은 (11:11) 의인의 기도가 (마음속의 생각만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가져오는 유익을 언명한 것으로 보인다. 의인에 관한 이러한 묘사들은 통상적으로 현인을 묘사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의와 지혜가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겹치지 않는다 해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체

26) 이들 어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M. Fox, “Words for Wisdom,” *ZAH* 6 (1993), 149–169; 동저자의 *Proverbs 1–9*, AB 18A (New York: Doubleday, 2000), 28–38를 참조하라.

27)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이집트 지혜문헌에서 이상적 인간상인 “고요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성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로 하는 언명들이 빚어내는 효과는 언어학적 맥락을 넘어서는 효과를 갖는다.²⁸⁾

두 개념 간의 교섭상을 연구한 후르비츠는 의인과 현인의 ‘동일시’가 지혜전승 사고의 전형적 형태라고 결론짓는다.²⁹⁾ 그러나 양자의 관련성은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분석이 함의하는 것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 현상은 지혜문헌 저자들의 언어학적 특이성보다는 잠언서가 가진 ‘개념상의 특이성’(conceptual differentia)을 더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언을 저술·편집한 현인들은 의도적으로 도덕과 지성을 통합하는 수사법을 사용해 잠언서의 교훈을 전달했다. 잠언의 독자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지혜가 필요했으며, 참된 지혜는 반드시 의로움을 동반했던 것이다.

미덕윤리(virtue ethics) 역시 위와 같은 논리전개를 뒷받침한다. 미덕윤리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의롭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 맥किन(McKinnon)의 설명은 이렇다:

실질적 추론의 탁월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지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자라난 환경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실질적 지혜를 획득하고 도덕적 지성적 탁월함을 남긴 사람은 고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훌륭한 환경이나 특권도 사람을 선한 사람 혹은 현명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³⁰⁾

맥किन은 실질적 지혜 (pronesis, practical wisdom)가 의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과 품성계발에 실질적 지혜가

28) Knut Heim, “Coreferentiality Structure and Context in Proverbs 10:1-5”,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6 (1993), 196.

29) Avi Hurvitz, “Saddiq = ‘wise’ in Biblical Hebrew and the Wisdom Connections of Ps 37,” *Goldene Äpfel in silbernen Schalen* (Frankfurt a.M.: Lang, 1990), 109–113.

30) Christine McKinnon, *Character, Virtue Theories, and the Vices* (Broadview Press, 1999), 229.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덕윤리의 근본적 신조이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퀴나스, 칸트를 거쳐 현대의 누스바움,³¹⁾ 자그제브스키에게까지³²⁾ 많은 사상가들의 지지를 받은 명제이다.

의인은 어쩌다 보니 의롭게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의인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그 원리들을 배워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지혜로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반대의 명제도 참인데,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의로운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잠언이 가르치는 방식은 단순한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 경외가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사실 오래된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의 미움을 받고서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으리라는 원초적 관념이 유신론적 세계관에서는 공유되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의로와야 하고,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현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즉 지혜습득과 성품개발의 초점을 제공해 주는 의와 지혜의 통합적 관점은 잠언서가 가져온 진정한 기여분이다. 이 내용을 집약해 주는 이상적 인간형을 가리키는 일차적 호칭이 바로 의인인 바, 그는 의로움과 현명함의 이상적인 학습자이자 실천가인 것이다. 광범위한 참조구절에서 밝혀지듯이, 이 사람 하감짜디(의롭고-현명한 자)은 의미론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기능적으로는 통합된 의와 지혜의 두 측면을 몸으로 체화한 존재이다.

4. 의인은 행복하다

잠언서가 그리는 의인은 부와 힘을 부여받았다. 그는 부와 장수, 안전,

31) 이 논점과 관련해 가장 유용한 작품은 Martha Nussbau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이다.

32) Linda Zagzebski, *Virtues of th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명성 등 성공적인 삶의 요소들을 누리는 존재이다. 그의 삶은 일상적 삶의 수고와 격리되어 보이고, 그의 적수인 악인도 그의 안정되고 고요한 삶을 늘상 위협하는 듯 보이지 않는다. 의인은 재판에서 이기고 (11:4),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을 한다 (10:24; 15:8).³³⁾ 그의 삶에는 풍요한 생명과 (10:16; 11:19; 12:28) 축복이 (15:9) 동반된다. 아웨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안전을 베풀기에 그의 근원은 위협받지 않는다 (10:3; 30; 11:3).³⁴⁾ 아웨는 악인의 유산이 의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보장까지 하신다 (13:22). 이러한 진술은 당위성의 진술이 아니라 현실의 묘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잠언서는 의인에게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의로운 삶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고’ 받게 ‘되리라’는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인의 특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의인의 중요한 특징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에 수긍이 간다. 의인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진다.

의인의 기대는 즐거움이나,
악인의 희망은 사라지리라 (10:28)

의인의 모습은 우울함이나 완고함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잠언서의 도덕강화에 나오는 의인의 묘사는 그를 긍정적이고 쾌활한 모습으로 그려준다.³⁵⁾ 잠언서에 나타난 의인의 모습을 보면 고요함과 기쁨의 적절한 조화가

33) 기도의 응답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잠언의 진술대로 그가 요청한 것을 얻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34) 고사이 (Gossai, Justice, *Righteousness and the Social Critique of the Eighth-Century Prophets* [New York: Peter Lang, 1993], 6)는 짜딕에 관한 모든 진술은 “종교적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잠 10:3의 내용을 (“아웨께서 의인의 굶주림을 허락지 않으시고, 악인이 탐내는 것은 내주지 않으신다”) 그 유일한 예외라고 진술한다. 잠언 10:3은 경험과 관찰로써만은 도달할 수 없는 대담한 선언이자 신학적 고백이라 보아 마땅하다.

35) 슈타이에르트는 의인의 성품을 요약하면서 “평강의 사람”, “기쁨과 삶의 온전한 긍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Franz-Josef Steiert, *Weisheit*

의로움의 한 가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의인이 이상적 인간형이라면 자신의 삶에 만족할 것이 분명하다. 기쁨 혹은 행복이란 관념은 의미상으로는 의로움과 관련성이 없으며 사람의 행복이 그가 의롭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의로움은 좁은 의미에서의 도덕률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정서적 영역을 포함한 전인격을 품는 것이 분명하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기쁨이야말로 의인을 악인과 대칭점에 놓는 대조점이 된다.

악인은 자신의 죄에 갇혀 있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29:6)

이 기쁨의 원천은 명확하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흔들림 없는 관계가 그것이다. 의인은 탁월한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선언한다.³⁶⁾

야웨의 이름은 강한 성루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피신한다 (18:10)

신뢰와 의존의 모티프는 의인의 종교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러한 의존의 결과로 의인은 정서적 안정과 고요함을 얻는다.

악인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치고
 의인은 사자처럼 안심한다 (28:1)³⁷⁾

Israels-ein Fremdkörper im Alt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90), 157-163.

36) 의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외에도 이 구절은 흔히 (부당하게) 지나친 낙천주의 성향이라 낙인찍히는 잠언의 “현실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점에서 특별하다. 의인도 위험을 면제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피난처를 위해 부르짖는다는 것이 다르다. 이 모티프는 시편 중에 시인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면서 무죄선언과 보호,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는 일련의 시들 속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37) 이 구절의 주석에서 김정우는 “흥미롭게도 악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양된 관점에서 보면, 부와 힘을 맹목적으로 추구해 봐도 행복의 원천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이 명확해진다. 잠언서 앞부분에서 깡단, 행실 나쁜 여인, 우매 여인들의 주장과 유혹을 조직적으로 해부 해체해 보임으로써 아버지가 폭로한 내용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아버지는 눈먼 돈, 즉흥적 성행위, 노동 없는 쾌락이라는 유혹의 허구성을 발가벗긴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방향이 틀렸고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매력적인 겉모습과 달리 이들의 파괴적 힘은 순진한 피해자들을 결국 불행과 수치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잠언서 후반부(10-29장)의 격언들은 현명한 삶의 원리, 즉 겉모습 아래 진실을 보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악한 사람이 얼핏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악인들은 두려움에 밀려다니는 공허한 삶을 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소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이야말로 오늘 이 순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다. 의인은 솟아 오르는 해처럼, 점차 밝아져 영광스런 결말을 보게 된다(4:18).

이 사실들을 알면 곧바로 질문이 일 것이다. 이런 진술들은 과연 관찰된 사실인가 아니면 희망과 믿음의 진술인가? 것처럼 대답한 진술들이 결국은 삶의 현실과 충돌을 일으킬 때, 거침없는 낙관주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블렌킨쑤프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런 진술들은 “관찰과 경험에만 근거해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³⁸⁾ 이들 진술은 깊은 종교적 확신에서 배태된 신앙의 증언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잠언서는 의로운 삶이 명성, 부, 장수와 같은 손에 만져지는 유익을 통해 보상받는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의롭고 현명한 삶의 유익은 기쁨과 고요함 같은 내적 성품들도 포함한다. 기쁨과 고요함은 그 자체로서 행복이라 부르기 어렵지만, 그들을 통해 잠언서가 권면하는 미덕들을 육화하는 내적 삶이

도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심리적으로 깊은 안정감과 확신을 갖고 산다”라고 예리하게 분석한다. 김정우, 『잠언』, 734.

38) J. Blenkinsopp,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7.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도록 도와준다. 우열평가잠언(better-than proverbs)들에서 드러나듯, 잠언서는 덕스러운 삶이 누리는 구체적 유익들을 짚어가면서 그 학습자들이 초월적이고 영속적인, 더 훌륭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준다.³⁹⁾ 인생의 쾌락과 행복에 관해 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다음 격언을 주목하라:

악한 자는 거짓된 임금을 벌지만
의로움을 뿌리는 자는 참된 보상을 얻는다 (11:18)

이 잠언의 호소력은 의인이 누릴 보상의 진정성을 악인의 운명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데 있다. 악인이 집착하는 권력과 부는 매력적인 현실로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허상일 뿐이다. 위 격언에서 “의로움을 뿌리는 자”와 악한 자 사이의 반어법적 평행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행동의 표상은 성품과 결과의 연계성을(character-consequence nexus)⁴⁰⁾

39) 잠언서의 우열평가잠언 연구를 위해서는 부와 가난의 주제에 집중한 Raymond van Leeuwen,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Hebrew Studies* 33 (1992), 25-36; 우열평가잠언을 하위장르(subgenre)로 다루어 공통적 해석의 프레임을 찾는 Sun Myung Lyu, *Righteousness*, 83-93; 구문론과 의미론에 집중한 언어학적 분석인 Josef Wehrle, *Sprichwort und Weisheit* (St. Ottilien: EOS Verlag, 1993)를 참조하라.

40) 밴레이븐은 이렇게 평한다. “씨를 심고 거둔다는 표상은 성품과 결과의 상관성을 가리키는 성경의 기본적인 은유이다 (Job 4:8; Ps 126:5; Prov 22:8; Hos 10:12; 2 Cor 9:6; Gal 6:7).” Van Leeuwen,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50 (1990), 119. 지혜문학, 특히 잠언서의 사상으로 흔히 인용되는 행위-결과-연계성(act-consequence nexus)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행위-성품-결과 연계성(act-character-consequence nexus)에 대해서는 L. Boström, *The God of the Sages: The Portrayal of God in the Book of Proverbs*, (Stockholm:Almqvist & Wiksell, 1990)를 참조하라. 잠언해석 논의들에 대한 개관으로는 R. N. Whybray,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 (Leiden: E. J. Brill, 1995);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3 (2012) 34-59;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Canon&Culture」 5 (2011), 203-235; 창조신학 프레임에서의 잠언논의로 노세영,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미덕을 원하는 욕구가 갖는 도덕적 함의를 강조해 준다. 19절 후반절 역시 이같은 관념을 뒷받침해준다. “악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마주치게 된다”. 이 격언의 의도는 “사악한 (자의) 부리는 비정상성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⁴¹⁾ 악인의 성공을 다루는데 있다.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궁극의 인센티브는 뜻밖에 단순하다:

악인의 길은 야웨의 혐오대상이지만
의를 추구하는 자는 야웨께서 사랑하신다 (15:9)

이미 친숙한 악인과 의인의 대비와 평행을 이루는 대비구조가 야웨 하나님의 혐오와 애정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악인과 의인의 대비는 무수히 많은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 인격의 윤곽, 행동의 동기, 행동의 패턴, 그들의 결말 등등. 하나님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즉 상반되는 행선지(destination), 상반되는 결말(destiny)이라는 말을 야웨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는다. 최상의 행동이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행동이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다.

잠언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의롭고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에서 현인과 의인은 사실상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잠언에 현인을 칭송하는 수많은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친밀함은 의인에게, 증오라는 단어의 격렬성은 악인에게 적용될 뿐이다.

위 잠언에서 a // b 평행구조를 살펴보면 “악인 :: 의인”의 대비를 기대할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학,” 「신학사상」 85 (1994), 94-118;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문학과 창조신학,” 「기독교문화연구」 2 (1997), 305-319를 참조하라.

41) 사실 이 구절은 “악한 재물”을 설명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한다. 다시 말해 부당한 이익은 믿지 못할 허상일 뿐이라는 믿음을 심는 것이 격언의 의도일 것이다.

자리에 흥미롭게도 “악인 :: 의의 추구자”라는 대비가 나타난다. 독자가 “의로운 사람”을 기대할 자리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잠언이 “의를 추구하는 이가 곧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등식을 가르치고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의로움을 성취한 자와 실질적 등가로 여겨진다면, 의로움이란 어느 지점에 닿으면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level)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그가 의로움을 원하고 추구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의 의로움이란 그가 (이상화된) 의로움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지향성(intention)에 의해 측정된다.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이 의행의 축적이 아닌 의를 향한 의향의 여부에 달려있다면, 잠언이 그리고 있는 의인상은 곧 독자들에게 같은 길을 걸으라는 초청이며 따라야 할 모범(exemplar)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인의 길 끝에서 얻는 최종적 유익과, 그 어떤 현실적 이익에 건줄 수 없는 궁극의 덕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잠언의 현실주의”를 말하는 모든 논의의 한계점에 두고 기억해야 할 엄연한 사실이다. 잠언을 비롯한 지혜문학 배후에 있는 “지혜학파”(wisdom school) 가르친 것이 율법의 엄격함이나 예언의 초월성이 결여된 일종의 “현실주의적 기지”라고 하는 류의 주장은 매우 편협한 것이다. 잠언에는 내세와 초월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동경과 애정이 표현되어 있다.

맺는 말: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본다.

잠언에 준비한 현명한 행동을 위한 조언들을 고려할 때, 잠언서를 쓴 현자들이 현실도피주의자나 몽상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논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냉소적인 현실순응자도 아니었다. 일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을 리 없지만, 그들은

의로운 삶이 ‘결국’은 지혜롭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의로운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잠언서의 인생관이 잘 드러난 표현양식으로 אַחֲרַיִת(결국, 마지막)이란 단어가 포함된 경구들이 있다. 히브리어 אַחֲרַיִת은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미래를 가리킨다:

슬기로운 충언에 귀를 기울이고 훈육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결국에는 지혜로와질 것이다. (잠 19:20)

이 잠언에서 “결국”이 막연한 종말론적 시간이 아닌 사람의 일생이라는 구체적 시간 프레임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 구절에서의 “결국”은 생의 마지막 시기일 필요도 없다. 지혜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성숙한 모습을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⁴²⁾ 잠언이 제시한 두 갈래 인생길에서 선택의 결과는 인생의 “결국”에서 분명해진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경외하기를 종일 사모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닥쳐올 때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잠 23:17-18)

“결국” אַחֲרַיִת(이하릿)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고 죄인을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 주제는 양식상 지혜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편의 교훈시에도 등장하는 주제이다. 아래 구절에서 ‘이하릿’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나 생의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만족스럽고 품격있는 삶을 의미한다:

42) 코헨은 히브리 단어 אַחֲרַיִת이 구약성서 대부분 용례상 인생의 종료를 뜻하지만 잠언에서는 인생의 남은 기간 내지는 단순히 미래를 가리킨다고 관찰한다. Abraham Cohen, *Proverbs*, The Soncino Books of the Bible (London: Soncino, 1946), 128.

티없는 사람을 주목하고 올곧은 이를 눈여겨 보이라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범법자들은 다함께 무너져 내리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져 버리리라 (시 37:37-38)

즉 ‘아하랏’은 복되고 값진 미래이며 악인들에게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인이 형통하는 듯 보여도, 결국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잠 24:20) 이와 반대로 악인들의 미래는(תַּרְחֹם 아하랏) 어둡다.

내가 이 일을 이해하려 깊이 생각했더니
 그것이 내 눈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마지막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레 그들이 무너지던지
 부숴뜨려져 두려움의 바람에 날려버리는구나! (시 73:16-17, 20)

이러한 격언들의 종합적 결론은 결국 지혜(19:20; 24:14)와 의로움(23:17-18; 24:20)으로 수렴된다. 인생의 궁극적 성취는 지혜자-의인이 되는 것에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물론 잠언서에서 이런 가르침은 이론적 종말론이라 부를 만한 적용범위나 정교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르침 안에서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서는, 개인적 종말에 대한 모종의 사유체계를 찾을 수 있다.

잠언서는 현실 속의 예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실의 가져다 줄 선한 결과를 믿고 기다리도록 촉구하면서 의로움과 지혜를 그 가치의 코드로 제시한다. 행복한 인생은 귀한 미덕과 품성을 내면화하는 과정, 특별히 미덕과 품성의 정점이라 할 의로움-지혜를 체화하는 데서 얻어 진다는 것이 잠언 도덕강화의 결론이기에 인생의 “인과법칙”은 행동-결과의

직접적 연결 대신 행동-품성-결과의 3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생은 쉽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람의 궁극적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의로움과 건고한 사랑을 추궁하는 이는
생명과, 의와, 명예까지 찾게 되리라 (잠 21:21)

인격적 주체가 배제된 행동-결과의 등식 안에서는 삶의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를 원하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그분에게로 수렴되는 관계망적 경건(*relational piety*)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의(토브)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결국 잠언서의 독자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대받는데, 잠 16:3은 그 메시지를 잘 요약해준다: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네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잠언서는 의인의 복된 모습을 예시함으로써 행동의 지침을 뛰어넘어 실질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도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⁴³⁾

<주제어>

잠언, 지혜, 의로움, 의인, 인격, 가치, 교수법

<Key Words>

proverbs, wisdom, righteousness, righteous person, character, value, pedagogy

* 접수일 2016년 3월 5일, 수정일 2016년 3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6년 3월 18일

43) “Far from being a simplistic handbook of moral codes, the book of Proverbs therefore evinces a strong moral vision that is not only practical, but also relational and deeply religious at the same time.” 필자의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FAT II/55 (Tübingen: Mohr Siebeck, 2012), 61에서 인용.

참고문헌

- 김정우,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Canon&Culture』 5 (2011), 203-235.
- 노세영,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학,” 『신학사상』 85 (1994), 94-118.
-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3 (2012), 34-59.
-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문학과 창조신앙,” 『기독교문화연구』 2 (1997), 305-319.
-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Blenkinsopp, J.,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Boström, Lennart, *The God of the Sages: The Portrayal of God in the Book of Proverb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90.
- Cohen, Abraham, *Proverbs*, The Soncino Books of the Bible, London: Soncino, 1946.
- Crenshaw, James L.,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Atlanta and London: John Knox and SCM, 1981.
- Crenshaw, James L., “Poverty and Punishment in the Book of Proverbs,” *Urgent Advice and Probing Questions: Collected Writings on Old Testament Wisdom*, Macon: Mercer, 1995, 396-405.
- Fensham, F. Charles,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29-139.
- Fox, Michael V., *Proverbs 1-9*, AB 18A, New York: Doubleday, 2000.
- Fox, Michael V., “Words for Wisdom,” *ZAH* 6 (1993), 149-169.
- Fox, Michael V., “Words for Folly,” *ZAH* 10 (1997), 1-12.
- Gammie, John and Perdue, Leo,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Gossai, Hemchand, *Justice, Righteousness and the Social Critique of the Eighth-*

- Century Prophets*, New York: Peter Lang, 1993.
- Heim, Knut, "Coreferentiality Structure and Context in Proverbs 10:1-5,"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6 (1993), 183-209.
- Heim, Knut, *Like Grapes of Gold Set in Silver: an Interpretation of Proverbial Clusters in Proverbs 10:1-22:16*, BZAW 27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
- Hurvitz, Avi, "Wisdom Vocabulary in the Hebrew Psalter: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Wisdom Psalms,'" *VT* 38 (1988), 41-51.
- Hurvitz, Avi, "Saddiq = 'Wise' in Biblical Hebrew and the Wisdom Connections of Ps 37," *Goldene Äpfel in silbernen Schalen*, Frankfurt a.M.: Lang, 1990, 109-113.
- Lyu, Sun Myung,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FAT II/55,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McKane, William, *Proverbs: A New Approac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 McKinnon, Christine, *Character, Virtue Theories, and the Vices*, Broadview Press, 1999.
- Midgley, Mary, *Wickedness: A Philosophical Essa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 Murphy, Roland, "Wisdom in the OT," *ABD* 6, 920-931.
- Nussbaum, Martha,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cott, R.B.Y., "Wise and Foolish, Righteous and Wicked [Prv10-29]," *VTSup* 23 (1972), 146-165.
- Steiert, Franz-Josef, *Die Weisheit Israels—ein Fremdkörper im Alt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90.
- Van Leeuwen, Raymond C.,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SBLDS 96,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Van Leeuwen, Raymond C.,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50 (1990), 111-144.
- Van Leeuwen, Raymond C.,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Hebrew Studies* 33 (1992), 25-36.

- von Rad, Gerhard, *Wisdom in Israel*, Translated by James D. Martin, London: SCM, 1972.
- Wehrle, Josef, *Spruchwort und Weisheit*, St. Ottilien: EOS Verlag, 1993.
- Westermann, Claus, *Roots of Wisdom: The Oldest Proverbs of Israel and Other Peop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 Whybray, R. N.,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 Leiden: E. J. Brill, 1995.
- Whybray, R. N.,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T*, BZAW 135, Berlin: W. de Gruyter, 1974.
- Whybray, R. N.,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9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Zagzebski, Linda, *Virtues of th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초록>

잠언에 나타난 의인의 모습

유선명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본 연구는 성경의 이해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로움의 문제가 잠언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전개되는 지를 조사한다. 잠언은 의로움에 대해 보여주는 구체적이고도 집요한 관심과 독자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교수법(pedagogy)에 있어서 구약성경을 통틀어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하고 흥미로운 책임에도 이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빈약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간극 중 일부를 메꾸는 문제의식, 즉 잠언이 의로움을 이야기하여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근본 가치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려는 시도이다. 잠언이 의로움을 논하고 그 구현을 꿈꾸는 공간은 일차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격체이며, 잠언이 의도하는 교육은 의로운 사람을 양성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잠언은 의로움을 사회적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펼치는 대신 의인을 사람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ideal) 인간형으로 드높이고 독자가 동경하고 모방할 교본적(paradigmatic) 삶으로 제시한다. 표면상 잠언서의 일차적 강조점으로 보이는 지혜조차도 의로움과 짝을 이루어 제시될 때는 의로움을 획득하는 도구개념으로 제시된다는 현상이 그러한 목표의식의 철저함을 확인시켜 준다. 의로움은 돈과 권력으로 요약되는 세상의 매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치라는 тезис는 “소득은 작아도 의로운 삶이, 고소득과 불의를 겸한 사람보다 우월하다(잠 16:18)”라는, 지당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발적인 명제에 함축되어 있다. 의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월한 삶인지를 설득하기 위해 잠언서는

의인은 사회구성원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넘어서까지 멀리 바라보는 탁월한 존재임을 수많은 격언(saying)과 강의(lecture)를 통해 그려 보인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이 아름답기에, 의인은 정오의 눈부심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을 비취주는 “돋는 햇살”이며 (잠 4:18)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궁극적 보상이 약속된 삶을 사는 행복한 존재이다. 잠언의 독자는 이 이상을 꿈꾸며 의인과 함께 의로움의 길을 걷도록 초대받고 있다.

<Abstract>

A Profile of the Righteous Person in the Book of Proverbs

Prof. Sun Myung Lyu
(Baekseok University Divinity School)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book of Proverbs defines and explicates the issue of righteousness, a crucial task for understanding and appropriating the Scriptures. Proverbs is singular among the OT books in its intense focus on righteousness and in its unique pedagogy in promoting the virtue of righteousness. The paucity of serious study on this issue is hard to explain, and this study aims to bridge that gap by raising a question and providing answers to it. What is the fundamental value promoted by the discourse on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The place in which Proverbs strives to get righteousness materialize is the inner space of the righteous person, so the pedagogic orientation of Proverbs is aligned with the issue of how to nurture a righteous person. Instead of promoting righteousness as a social ideal and discussing how a society can attain it, Proverbs exalts the character of righteous person as the ideal and paradigmatic character to emulate. This pedagogic intention is so pervasive that whenever wisdom, the stated goal of all learning, is described in tandem with righteousness it serves to attain righteousness. Righteousness is the supreme value incomparable to money and power, and it is the gist of the apparently self-evident but truly radical saying,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revenues with injustice (Prov 16:8, ESV)." To explain how a righteous life is a better one, Proverbs presents the righteous person through numer-

ous sayings and teachings as a compassionate, wise, and happy person who looks far and beyond. Although even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sufferings and frustrations, the end of such life is beautiful. So the righteous life is like the light of the dawn (Prov 4:18), since it is given a promise of God's love as the ultimate reward. Readers of Proverbs are invited to pursue this ideal and walk with the righteous ones along the path of righteousness.

